

마사회

사회통합	윤리경영
상생협력	지역신뢰

사회적가치 창출 공기업 '우뚝'

새 경영슬로건·4대 추진 전략 발표
존재목적·사업 지향점은 국민 향해
장외발매소 리모델링해 장학센터로

박근혜 정권 당시 여러 구설수에 휘말렸던 한국마사회가 최근 내부 혁신을 위한 새 경영슬로건 및 사회적가치 실현 과제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마사회에 따르면 새 경영 슬로건은 '국민을 향해, 말과 함께'로 정했다. 또 ▲사회통합 ▲상생 협력 ▲윤리경영 ▲지역사회 신뢰구축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으로 만든다는 경영 비전도 정했다.

마사회는 "마사회의 존재 목적과 사업 추진의 지향점이 국민을 향해 있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말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우선 그동안 지역사회 갈등 요소로 지목돼 온 서울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건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왼쪽 맨 앞 건물) 모습. /뉴스1

물을 리모델링 해 청년층의 취업과 주거 해결 공간인 청년 장학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화상경마장 건물을 사회공헌 용도로 활용해 마사회하면 떠오르는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공의'이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리모델링 계획안 모습.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는 마사회가 약 12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8212.69㎡, 지상 18층 규모로 세운 건물이다. 하지만 학교 및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반대단체와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12월 31일 폐쇄된 바 있다.

마사회는 건물 상층부 11개(8~18층)

층 가운데 9개 층에 대학생 약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학관을 조성한다. 이중 6개 층은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실로, 3개 층은 식당과 독서실 같은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나머지 2개 층은 사회공헌센터로 조성된다. 센터 내에는 말 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창업센터와 청년·취약계층에 무료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센터가 들어선다. 1층부터 7층까지 하층부 7개 층은 현재 소송이 걸려 활용 방안을 호가정하지 못한 상태다.

마사회는 리모델링 될 청년 장학센터에 놓여진 자녀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비용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전액 지원하려던 계획을 세웠던 터라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의 평균 기숙사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사회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특수직무종사자에 대한 재할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9월부터 소방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재할·힐링 승마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대

상을 경찰·교정직·학교밖 청소년 등으로 넓히고 인원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9월부터 11월까지 3달 간 일반 국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무료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고, 승마 교육 희망자에게 강습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이를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이익금이 3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사회공헌 사업비를 합하면 한 해 예산 7000억원의 20% 정도를 사회적가치를 위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마사회는 그동안 상당한 액수의 사회공헌자금을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에 들어오는 민원 해결 비용으로 써왔다"며 "이제는 방어진의 의미의 사회공헌보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승마를 활성화 해 말 산업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쪽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김구 친필휘호 '광명정대' 고국 품으로

김형진의 후손으로부터 기증 받아

독립운동가 후손인 재미동포가 기증한 백범 김구의 친필휘호 '광명정대(光明正大)'(사진)가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백범 김구(1876~1949년)의 글씨 '광명정대(光明正大)'를 독립운동가 김형진(1861~1898년)의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아 지난 5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무사히 인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돌아온 백범의 글씨는 1949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39주년을 맞아 김구가 독립운동 동지였던 김형진의 손자 김용식에게 손수 써 선물한 것이다. 종이에 먹으로 쓴 이 휘호의 크기는 110cm(세로)×40cm(가로) 규모다. '光明正大'라는 네 글자, 글씨를 선물 받은 김용식의 이름, 작성 일자가 적혀있으며, 백범의 인장 2점(金九之印, 白凡)이 찍혀있다. 광명정대는 '언행이 떳떳하고 정당함'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광명정대'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백범의 휘호여서 그 희소 가치가 클 뿐 아니라, 필체에 서도 백범의 기백이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했다.

독립운동가 김형진은 김구와 1895년 무력으로 일제를 격퇴할 것을 결의하고



중국 심양에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동행했던 것이다. 1896년에는 김구와 함께 의병에 가담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1898년 동학의 접주(接主)로 활동하다 체포돼 일제의 고문 끝에 생을 마감했다. 1990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광복 후, 김구는 김형진의 유족들을 자주 보살폈으며, 서거하던 해인 1949년 김형진의 손자 김용식에게 '광명정대'를 써서 선물했다. 이후 이 글씨는 1960년대에 김용식의 6촌 동생 김태식에게 전달되었고, 김태식 씨는 1973년 이를 가지고 미국 이민을 떠났다. 지난 4월 25일 김태식(83세) 씨는 오는 2021년 개관 예정인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 '광명정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주시애를 대한민국총영사관을 통해 정부에 무상기증 의사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이 휘호를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정우 선임

前 노무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
사회적약자 위한 사업 탄력 전망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정우(67) 전 노무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 선임됐다. 이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와 하버드대를 졸업한 엘리트 학자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학·복지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이 신임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 모집과 심사와 교육부장관의 제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 13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1년 8월까지 3년이다.

이 이사장은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경감 지원 사업 등 한국장학재단의 업무 영역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의 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 한정된 장학·복지 사업의 범위를 고교로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신임 이사장이 13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장학재단 관계자는 "사회적 불평등구조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학을 공부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대학 입학이 어려운 고교생 대상 장학 사업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경북고 졸업 후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학자로 분류된다. 이후 1977년부터 경북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해오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자 초대 정책실장, 대

통령 자문 부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는 경북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약자를 위한 경제학'(2014년), '불평등의 경제학'(2010년) 등이 있고 청초근정훈장(2005년)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9년 5월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생 기숙사 등 학생 복지 시설 설치와 운영,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한 채권 발행과 기부금 모집 등을 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

오늘의 날씨

8월 14일
음력: 7월 4일

수도권 날씨
36~2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47 | 해질 / 19:26

연천 25/35, 동두천 26/36, 가평 24/35, 파주 25/35, 서울 28/36, 양평 26/36, 인천 28/35, 수원 27/36, 용인 27/36, 평택 26/36, 백령도 25/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윤리위원회 발족... '청렴 경영' 박차



분기별 안건 협의해 질적 성장 도모

홈쇼핑이 윤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청렴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홈쇼핑은 최근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윤리위원회 발족식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윤리위원회 발족은 최근 사회전반으로 확산된 건강한 기업문화 정립 필요성

을 반영했다. 또 그동안 홈앤쇼핑 내에서도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윤리경영 제도 도입 및 프로세스 정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리위원회는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를 위원장으로 김재욱 고려대학교 교수,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분기별로 각종 안건 및 이슈사항을 협의하고 제안해 논의함으로써 홈앤쇼핑 윤리경영 활동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병배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윤리 경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만 진정성이 없는 윤리경영은 의미가 없다"며 "홈앤쇼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홈앤쇼핑 최중삼 대표는 "지난 6월 취임 일성으로 절차와 제도 등 모든 것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재조정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윤리위원회 출범은 조직 내외의 신뢰감 구축을 위한 당연한 수순인 만큼, 빠르고 아픈 조연들도 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